헬기신앙 vs 자동차신앙

(갈1:11~24)

1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3.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헬기신앙 vs 자동차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헬기신앙 대 자동차신앙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 하면서, 나는 헬기신앙에 속한 자인가, 자동차신앙을 갖고 있는 자인가를 한 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다 아시지요?
이 헬리콥터가 다른 비행체에 비해서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그럴까요, 특징이라 그럴까요?
하여간 그게 뭐냐 하면, 어느 곳이든지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수직으로 지면을 떠나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직으로 하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활주로 같은 거를 필요로 하지 않지요, 전혀.

그러니까 빌딩 옥상에도 이착륙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헬리콥터는 가만히 공중에 떠서, 수직 상승해서 정지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후좌우로 움직여 갈 수가 있지요.
하지만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중에서 떠있어야 돼요.
대부분 헬리콥터의 랜딩기어, 스키처럼 생겼잖아요?
이것을 스키드라고 합니다, 스키드.
스키처럼 생긴 랜딩기어로 버팀목이 있는데, 약간의 탄력이 있습니다.
그 쇳덩어리로 돼있는데 탄력이 있어서 땅에 착륙할 때 약간 탄력을 받아 충격을 완화시켜 주면서 헬리콥터의 몸을 지탱하고 땅 위에 있게 해 주는 거지요.
이게 스키드인데, 스키드로는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금이라도, 한 10미터라도 움직이려면 반드시 지면에서 수직으로 이륙해서 상승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헬리콥터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헬리콥터를 이제 타 보면, 전 참 많이 탔어요, 헬리콥터를.
헬리콥터 정비도 하고, 비행대에 있을 때는 서울로 외출을 나올 때면 동두천 비행장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의 미군 용산 비행장에 내려서 외출을 나오곤 했지요.
이 헬리콥터의 비행의 자유로움은 타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 신기하지요.
자! 이런 특징이 있는 데에 비해서, 자동차를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차,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또 뭐 벤트리 포르쉐 뭐 이런, 이런 모든 값비싼 차, 이 비싼 차의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갖고 갈 때가 많습니다.
평평한 사막은 아스팔트보다도 더 지면이 곱기 때문에(모래로 돼 있어서) 거기서 속도를 시험하는데, 뭐 시속 600km 뭐 800km까지도 낸다고 그래요.
경이롭지 않습니까?
근데, 600km 800km의 경이로운 속도로 동서남북을 종횡무진해도, 거칠 것이 없는 사막에서 아~무리 종횡무진해도 단 1초도 공중에 뜨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도, 항상 지면에 네 바퀴가 붙어 있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자동차라는 겁니다.

헬기의 그 자리에서도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고, 하강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특성과, 자동차의 시속 600km, 800km로 동서남북을 종횡무진해도 단 1초 단 한 순간도 공중에 떠 있을 수 없

다고 하는 이 특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헬기와 같은 신앙과 자동차와 같은 신앙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는, 이 헬기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과 자동차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 간에 대립의 역사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에벨링이라고 하는 학자는 교회사를 성경에 대한 해석의 역사라고 말했어요.
아! 참 의미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헬기신앙인들과 자동차신앙인들 간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였다 이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대체 우리가 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 번 살펴봐요.
사도바울이 갈라디아교회를 세운 뒤에, 갈라디아교회에 들어온 유대 땅에서 온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 교사들에 의해서, 갈라디아교회가 신앙적으로 혼선을 빚게 되면서, 이 편지로 지금 사도바울과 이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과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걸 말하자면 헬기신앙인과 자동차신앙인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을, 어제의 본문의 마지막절인 10절부터 한 번 이해해 들어가 봐요.
10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새삼스럽게 이런 자기변호를 하느냐 하면,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의 그리스도 교사들이 갈라디아교인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 교회를 창립한 사도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뭘 근거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까?
사도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신칭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이라는 것은, 적대자들의 눈에 들어온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 적대자들의 눈에는, 하늘 연합이나 땅 연합 같은 건 아직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준이 영적으로 안 됩니다.
영성이 거기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들어올 때는 사도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이신칭의인데, 제가 볼 때 복음의 핵심은 오히려 죄 사함과 이신칭의의 과정을 거친 그 다음의 연합의 단계에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얘기인데, 이 연합의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 적대자들의 눈에는 이신칭의인데, 이신칭의가 말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율법주의적인 성향의 그리스도 교사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구약적 전통인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으로서 2000년간 내려왔던 할례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구나, 그걸 제거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부담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면서 이방인들의 환심을 사려 그러는 거 아니냐?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들어오는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면서 환심을 사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부담되는 모든 짐은 지지 않아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 비난에서 나아가서 어떤 비난까지 이어지냐 하면, '결국 구약의 율법적인 전통과 단절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12사도의 복음적 정통성, orthodoxy, 정통성으로부터도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이들이 제기한 마지막 궁극적인 비난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사도바울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구약의 율법적 전통과 단절되어 있고 열두 사도의 정통성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맞다, 나는 구약의 율법적 전통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열두 사도의 정통성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내가 임의로 단절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깨닫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열두 사도와 상관없다고 내가 뿌리친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이라는 거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내팽개친 것도 아니다. 그럼 내가 왜 율법적 전통을 너희들의 말대로 끊고 율법적 전통과 단절이 되고, 사도들에게서 직접 교훈을 받지 않았는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지마는, 오히려 나는 하나님과 직접 만났기 때문에 율법적 전통과 단절됐고, 열두 사도와의 교제와는 상관없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느냐라는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헬기신앙과 자동차신앙의 대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도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를 어디서 포착하느냐 하면, 구약의 유대적 율법전통에서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조직의 강령을 따르는 것이고,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을 따르는, 전승을 따르는 것이고, 이렇게 이 사람들의 세계, 이 지구의 평면상에서 사람들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성전정화를 한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병고치고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와 가지고 뭐라고 물어봤는지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어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대제사장인 우리의 그룹과 바리새인 우리들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유대사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조직이,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정통성이 너를 인정한 바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단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바울에 대해서도 똑같이.
구약적 전통, 그리고 열두 사도로 인해서 생긴 정통성과, 인간적인 조직 내의 강령과 이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너는 너 혼자서 임의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자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이상하다? 구약적 전통과 단절되어 있고 열두 사도와 단절되어 있다고 해서, 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나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 분에게 직접 복음을 들은 것이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이외에는 다른 사도를 못 봤는데, 그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2주일동안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났으니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구평면 위에서 이루어져 있는 인간사회의 조직과 관계와 정통과 전통과 전승, 교훈 같은 것들로부터 나를 단절시키고, 직접 내게 복음을 주신 것이다.

자! 여러분, 뭐가 헬기신앙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수직상승을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향하여 수직상승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헬기신앙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동차신앙인들은, 반드시 전통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통성에 의해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직에 의해서 인가받는 것이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자동차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600Km, 800Km로 동서남북을 종횡무진해도 땅에서 발을 떼는 적이 없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일단 조직이 형성되면 조직의 기득권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들을 통하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게끔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조직화 되어버린 교회.
살아서 자기 자신을 갱신해 나가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허물어 나가면서 변신을 꾀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교회 안에서, 이 조직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직을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있는 자리가 시장이든 가정이든 그곳에서 수직상승하는 헬기신앙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래서 세상의 조직에 묶여버립니다, 세상의 조직의 강령에 종속돼버립니다.
이렇게 조직에 매여 살고, 전통에 매여 살고, 정통성에 매여 살고, 정통성이라 그러면 벌벌 떠는 거예요.
캘빈이 중요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서야 됩니까?
근데, 캘빈주의자들은 맨~ 캘빈이다, 개혁신앙이다, 이런 얘기만 떠들고 있고, 잡귀 하나 가지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안 합니다.
이거 문제이지요?

헬기처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수직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헬기가 1m라도 지면에서부터 수직으로 뜨잖아요? 그건 지면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심지어는 교회조직과 교회조직이 내놓는 강령과 전통과 정통과 인간적인 모든 교훈으로부터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인데, 헬기신앙인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 수직상승해서 하나님께 먼저 가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시장에서도 십자가를 붙잡으면 시장 통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지면의 원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사 원칙 같은 거,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헬기신앙을 갖는 자가 없는 거예요.
시장 통에서 통용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원칙과 원리에 의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에요,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전부 자동차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신앙으로.
동서남북으로 종횡무진해도 기껏해야 지면에서 만들어진 전통과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조직에 매여 있고.

그러면, 헬기신앙을 가진 자들은 전통과 조직과 정통성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유전 전승,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기만 하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동두천에서 헬기를 타면,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동두천 동네를 걸어 다니거나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기 동두천에서 떨어져 있는 소요산도 가보고 주변을 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는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카투사들이.
그 시간에는 돌아다니면서 주변 구경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기를 타잖아요? 똑같은 동두천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가 끝나게 되면 테스트플라잉이라고 시험비행을 하는데, 그 정비는 동두천 상공을 떠돌게 되니까 멀리 안가요.
그때, 자동차타고 가면서 봤던 동두천, 걸어가면서 봤던 동두천인데, 공중에선 완전히 다른 동두천이에요.
자동차타고 가보면 소요산이 하나만 보이잖아요?

근데, 헬기를 타고 보면 그 산 뒤에 산이 있고, 그 산 뒤에 냇물이 흐르고 계곡이 있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정통성과 인간의 교훈과 조직과 조직의 생리와, 조직의 강령 같은 것도, 헬기신앙을 갖고 하나님께로 먼저 가서, 마음이 머물고 있으면서 내려다 볼 때,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고착되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고목나무처럼 횡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헬기신앙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조직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조직의 생리가 새롭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바울을 율법적 전통과 단절됐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사도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구약성경은 인류의 책이 아니라, 지금처럼 모든 인류의 책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한 조그마한 족속들에게 속한 책으로 머물러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약전통을 끊어버리고, 헬기신앙으로 수직상승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입장에서 구약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온 인류가 읽는 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선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혈통상의 개념으로부터 신앙상의 개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 온~ 인류로 퍼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헬기신앙인들만이 진정으로 전통과 정통성과 교훈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이어가고, 가르쳐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신앙인들이 말하는 정통성과 전통과 유전과 교훈과 가르침, 조직, 조직의 강령 이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식시켜 버리는 신앙의 암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암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헬기가 수직상승 하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먼저 수직으로 상승해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마치 헬기가 이륙한 상태에서 동서남북으로 날아다니듯이, 추진해 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지상의 삶이 추진되어 나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전통과 정통성과 모든 인간의 전해 내려오는 전승들과 습관과 원리와 원칙들, 그리고 조직 이 모든 것들이, 일단은 우리가 의지하기에 편해 보입니다마는, 그것이 곧 죽음이고 사망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헬기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모든 지상에서의 이미 구축된 결과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로 수직상승하게 해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그러한 전통과 정통성 등등도 새롭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